

1-9-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솔로몬의 노래(아가서) 2:1-17

본문: 고린도후서 6:11-7:1

제목: 두 가지 성별(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말로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레 11:44)고 친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벧전 1:14-16)고 증거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다. 동시에 거룩함에 대하여 “그들(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고 말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증거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Holiness), 즉 성별(Separation)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로, 성별은 하나님의 생각, 즉 그분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온전히 분리되는 것(Separation from the world)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온전히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복주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과 접촉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또한

성별에 대한 보상은 본문에서 밝히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것(고후 6:17,18)과 제약없는 교제와 경배(히 13:13-15), 그리고 자신을 깨끗케 하는 자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 되어 열매로 가득한 사역(딤후 2:21)등인 것이다. 세상과 일치하는 것은 비록 구원은 잃지 않으나 이러한 보상의 약속들을 잃게 되는 것이다. 거룩함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 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표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셨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셨지만(히 7:26),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과 접촉하셨던 것이다.

두번째로, 성별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성별되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단지 술이나 담배 등 세상의 구습을 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별되는 것이다. 첫 번째 성별이 “Separation from the world?”라면 두 번째 성별은 “Separation unto God?”인 것이다. 이 두 번째 성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롬 1:1)라고 증거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성별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양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히 10:9,10)

그렇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양심(렘 17:9)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양심이 정결케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세상의 더러움이 영과 육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단 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달린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신 거룩함을 스스로 더럽히고 영과 육이 더럽게 되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성도의 행위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을 드린 것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리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엡 5:1-6)고 증거했다.

세상 속담에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나”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방어만 하는 사람은 잠깐 방심하기만 해도 공격을 당하기 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예 게으르게 되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어 사단이 공격해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인 전쟁에 패하게 되어 자신을 더럽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성별되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떤 은사도 받지 못하였는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사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모두 자신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빌 2:21)고 책망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그분의 선택 기쁨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빌 2:12,13)고 권면했다.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소원을 주시기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다 (고전 12:7-11).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종은 주인 앞에 항상 무릎꿇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나서 그분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종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분은 종의 형체로 계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분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9-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Song of Solomon 2:1-17

Main scripture: 2Corinthians 6:11-7:1

Subject: **Two kinds of separation (Holiness)**

Jesus Christ taught his disciples how to pray, asking them to start with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Father God himself also spoke, **“For I am the LORD your God: ye shall therefore sanctify yourselves, and ye shall be holy; for I am holy.”**(Lev. 11:44) Apostle Peter spoke unto them that received the sprinkl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be saved: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in your ignorance: But as he which hath called you is holy,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Because it is written, Be ye holy; for I am holy.”**(1Pet. 1:14-16)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encouraged Corinthians to perfect holiness. At the same time testified of holiness saying, **“Wherefore come out from among them, saith the Lord, and be ye separate, and touch not the unclean thing.”**(2Cor. 6:17) He also encouraged them again saying,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2Cor. 7:1) He explained about the reason of his encouragement saying, God will receive them; and God will be their Father, and they shall be his sons and daughters as said by the Lord Almighty.

There are two kinds meaning of holiness that means separation.

Firstly, separation is means to leave all things against His words that is the thoughts of the Lord God. In other word, it means to be separation from the world spiritually completely. Unless the children of God are separated from the unclean things of the world, God cannot bless them abundantly, and use them. It is impossible for the children of God to avoid access to the unclean things of the world, but they should not to be involved in the unclean things in the world. As the

rewards for holiness (separation) are clarified in the main passage, these are full revelation of Father God (2Cor. 6:17,18), and unlimited fellowship and worship (Heb. 13:13-15), and the abundant ministry with fruits, for they purged themselves from unclean things to be vessel unto honour, sanctified, and meet for the master's use, and prepared unto every good work (2Tim. 2; 21). Being conformed to the world is not the matter of losing salvation, but to lose such the promise of the rewards. Through the life of Christ, we can understand the example of the holiness. He is holy, harmless, undefiled, separated from sinners (Heb. 7:26), but he touched the sinners to save them.

Secondly, Separation is not only to be separated from the unclean things of the world, but to be separated unto God. To explain in easier way, the Christian not only to quit old habits such as smoking and drinking and so on, but to be partaker of the ministry of God to be separated unto God. The first separation is the **separation from the world**; the second is **the separation unto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his separation unto God to confess that he was prepared as the holy vessel before God saying,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called to be an apostle,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Rom. 1:1)

Then, how can we separated from the world completely, and also separated unto God? When God asks the children of God to be holy perfectly, it means that they that are forgiven all sin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and are born again of the Spirit could abide in holines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fact in the Spirit:

“For if the blood of bulls and of goats, and the ashes of an heifer sprinkling the unclean, sanctifieth to the purifying of the flesh: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Heb. 9:13,14)

“Then said he, Lo, I come to do thy will, O God. He taketh away the first, that he may establish the second.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Heb. 10:9,10)

Yes! They that received the remission of sin through true repentance are sanctified the conscience tha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Jer. 17:9) through the sprinkle of Christ. Therefore, the children of God have to abstain from the unclean things of the world not to defile the spirit and the flesh, for they are already sanctified through the blood of Christ. No man can clean himself to be holy, but can be holy right away once for all through the power of the blood of Christ. To keep holiness is depend upon the work of faith. Therefore, they that defile the holiness made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defiling the spirit and the flesh, and do the works of the flesh cannot receive any promise of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work of the saint as the beloved children of God: **“Be ye therefore followers of God, as dear children; And walk in love, as Christ also hath loved us, and hath given himself for us an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for a sweetsmelling savour. But fornication, and all uncleanness, or covetousness, let it not be once named among you, as becometh saints; Neither filthiness, nor foolish talking, nor jesting, which are not convenient: but rather giving of thanks. For this ye know, that no whoremonger, nor unclean person,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th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th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Eph. 5:1-6)**

There is a proverb, **“Offense is the best defense.”**

Yes! The man of offense is prepared for defense automatically, for he always is in alert. But the man of defense is vulnerable to be attacked when

he is not in alert even momentarily. They that are doing the ministry of God are not to be lazy to exercise the godliness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through the word of God, prayer and fasting to have clean and holy life. Such Christians could be protected from Devil’s attack through the victory in the spiritual warfare not giving any chance to the devil. Being lazy for prayer, spiritual eyes and ears are to be blinded to be resulted in losing spiritual warfare.

Can you testify of your separation unto God before God and men? Have you never received any gift of the Spirit? Then, have you ever asked for the gift to the Spirit? Apostle Paul rebuked the Philippians saying, **“For all seek their own, not the things which are Jesus Christ’s.”(Phil. 2:21)**

He also encouraged the Philippians saying,

“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Phil. 2:12,13)

Yes! God that works in the saints works to give the desires to do his good wills. Whosoever hears the voice of God working within, and work for it shall receive the gifts of the Spirit from the Holy Spirit to do his will (1Cor. 12:7-11). Are you hearing the voice of God to work for it? Or ignoring his voice? They that never pray cannot hear the voice of God. The servant of God always has to kneel down before the Lord to be ready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to do his will. Whosoever has received the eternal life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is the servant of Jesus Christ is called the servant of Jesus Christ. Until he enters the heavenly kingdom, he should do his best as the servant of the Lord Jesus. Jesus Christ,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as in the form of the servant of the Father God during his earthly ministry. Whosoever follows Christ has to deny himself as Christ,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him. This is the very man that is the son of God, and true Christian. Amen! Hallelujah!